



요한복음 4:13-26

- 1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 14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 15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 16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
- 17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 18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 19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 20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 21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 22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 23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25 여자가 이르되 메시야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요약

- 전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진심으로, 마음으로 한다면 계속 열린다. 전도, 선교할 때 뭐부터 알아야 되는가?
- **서론_상처**를 덮어놓고 있다.
- ▷ 교회 부흥을 위해, 행사에 활용해서 전도하려고 하면 안 된다. 부흥이 되면, 안 되면 복음 전해야 된다.
 - ▷ 상처는 영적인 암이라 걸리면 계속 뿌리내린다. 만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복음 안에서 이걸 없애줘야 된다. 상처를 안고 있으면 영적 성장이 멈춘다.
1. RT 7(TCK) - 램넨트 7명의 특징이 TCK였는데 오갈 데가 없었다.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었다. 그 큰 상처가 발판이 되었는데 굉장한 전도자로 바뀐 것이다.
 2. 히 11장(죽음) -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의 특징은 거의 죽음이였다. 이게 상처가 되어지면 죽는 거다.
 3. 초대교회(단절) -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사회에서 단절시켜 버렸지만 로마까지 정복했다.
- **본론_사마리아 전도**
1. **시대의 장벽(사마리아)**을 무너뜨리는 것(4-15절)
 - 1) 주전 722 - 앗수르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의 남자들을 전 세계에 노예로 팔았고 각 나라 남자들을 사마리아에 데려다 놓아 국제결혼이 일어났다.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잡종으로 본 것이다.
 - ▷ 전도, 선교 모르면 흑암 때문에 비참해지는 것이다. 여러분은 모르는 게 있다. 여러분 자체가 흑암을 무너뜨리는 빛이다. 사탄을 이기는 빛이다 (마 5:14, 사 60:1). 그걸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 2) 주전 606 - 복음 안 전하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

- 3) 주전 450 - 이스라엘이 돌아와 성전을 재건할 때 남유다 사람들이 잡종이라는 이유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동참을 막으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한 것이다.
 - 4) 주전 129 - 마카비 시대에 사마리아의 그리스산에 있는 성전을 다 파괴시킨 것이다.
 - 5) 원수(단절) - 완전히 원수처럼 되어서 단절되어 있었다.
 - ▷ 거기에 예수님이 가신 것이다. 시대의 상처를 완전히 무너뜨린 복음운동이다.
2. **개인의 상처**를 무너뜨리신 예수님(16-19, 25-30절)
 - ▷ 복음은 시대의 상처와 개인의 상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생수를 줄 테니 남편 데려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여자가 남편 없다고 했다.
 - 1) 다섯 명 - 전에 있던 남편 다섯 명은 네 남편이 아니다.
 - 2) 지금 남편 -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 3) 증인 - 여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순간, 증인으로 바뀌었다.
 - ▷ 상대가 상처를 내어놓을 만큼이 되어야 한다. 안 그러면 전도, 선교 헛일 된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치유되는 메시지를 계속하면 사람들이 연결되어 다 살아나 오게 되어 있다. 여기서 237, 치유, 서밋이 24 되어야 한다. 애들 기도할 줄 모르고 밖에 나가면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뭔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문제 만나면 말이 다르다.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답을 찾고 이길 수 있어야 된다. 상처가 가장 큰 축복인 줄 알아야 된다. 잘못하면 이게 어렵게 만든다.
 3. **종교의 상처**를 씻어줘야(20-24절)
 - 1) 그리스신앙, 예루살렘 - 우리는 그리스신앙에서 예배하고,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

나? 많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 기도해야 응답 되는 줄 아는데 틀린 것이다.

2) **하나님께** -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3)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신령)과 진리(진정)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 눈에 안 보이게 악한 영을 결박시키고 역사하게 돼 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은 영으로 역사하신다.

▷ 평신도 선교하시는 분들, 그 나라에 본인을 죽이는 오래된 것이 있다. 풀려줘야 된다. 개인의 상처 있다. 그게 자라서 어느 날 이상한 짓 한다. 예배 제대로 못드리게 하는 잘못된 종교의 상처 다 가지고 있다.

■ 결론

1. 참 복음 - 다른 것

참 복음은 다른 것 필요 없다. 그래야만 다른 것 살리는 것이다.

2. 참 기도 - 모든 것

참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 문제 되지 않는다. 그래야만 모든 것 살리는 것이다.

3. 참 전도 - 하나님 주권

참 전도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아침(고요한 기도) 낮 - 누리는 기도 밤(깊은 기도)

▷ 날마다 새 힘 얻어야 된다. 이 기도를 계속해 보라. 미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 안 해도 되는 응답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게 정상이다. 문제가 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보인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말씀하셨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게 될 것이다.”

녹취

사마리아 전도

오늘은 우리 '사마리아 전도'라는 제목으로 전도 운동해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장로님들이 모임에서 저를 초청을 했어요. 가보니가 부모 없는 소년 소녀들 장학금 주는 좋은 모임이에요. 거기서 저에게 설교를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몇 명이 장학금 받을 아이들이 와 있어요. 저는 개들을 보는 순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명은 아님데 한 일곱 명 정도 왔는데 일곱 명 다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거의 고개를 못 들고 있더라고요. 더더욱이나 일을 행사하는 분들이 너무 티를 내요. 그 뭐 대단한 거나 하는 거처럼 뭐 이렇게 대행사를 벌리고 애들은 부끄러워서 있는 거요. 제가 하도 미안해서 개들 명단을 내가 달라 해서 전화번호를 확인했다니까요. 왜냐하면 개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제가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나름대로 연락을 이

렇게 했습니다. 그중에 어떤 아이가 제게 책을 한 개 선물을 딱 주는 거요. 저는 그, 진짜 그 책 읽으면서 울었어요. 부모 없는 소년 소녀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내용이에요. '이야, 참 우리 어른들은 너무하다.' 하는 거요. 그런 어떤 큰 얼굴 내는 행사로 아이들 활용하면 안 되지요. 개들 통해 전도 문 계속 열리는 거요.

그때부터 제가 어떤 고아원 원장님이 연락이 왔어요. 성탄절에 좀 도와달라고. 갔습니다.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좀 쉽게 말하면 헌금을 좀 가지고 간 거지요. 그 원장님 보고 이랬습니다. "이 돈은 아이들 위해서 써라. 성탄절이 되면 여러 군데서 많이 올 건데 다음에 오겠다."이랬어요. 그 원장님 눈에 빛이 짝 나면서 나를 쳐다보는 거요. "아,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나, 이거지. 성탄절에 행사 때 뭐 들고 와서 이렇게 하나까 고맙긴 한데 애들은 상처가 된대요. 그랬겠지요. 그 뒤부터 그 고아원에 계속 전도 들어갔어요.

부산에서 시작할 때 우리 교회에서 교도소 전도 하러 간다고 하면서 권사님들이 뭐 먹을 거 준비해서 이렇게 갔어요. 그때 저는 막 피곤하고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아파 부교역자들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까이 가서 이렇게 "왜 안 먹냐?" 물으니까 이래 웃더라고요. 그런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요. 죄수 번호 달았는데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은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 참 괜찮게 생겼어요. 정말로 자기가 후회된다는 거요. 심하게 한 거 아님데 그냥 말다툼하다가 한 대 때렸는데 마누라가 죽었다는 거요. 그러니까 뭐 살인 아님니까? 그래서 자기는 생각에 늘 죽을 생각을 하고 있대요. 딸이 있는데 이 얼굴로 딸을 볼 수가 없다는 거요. 복음 전했습니다. 이 사람이 눈물로 그리스도 영접하고 변화 일어났습니다.

물론 먹는 거 가져가지 마라, 이 말은 아니지만 정말 복음 받을 제자들이 먹는 거 때문에 하겠습니까? 전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한다면 계속 열려요.

어떤 목사님이 소개했어요.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넘어오는데 강이 그래 깊지는 않은가 봐요. 넘어오는데 애를 안고 넘어오는 겁니다. 근데 애가 자꾸 우니까, 애가 울면 안 돼. 애 보고 울지 말라고 계속 얘기해도 애가 뭐 잘 못 알아듣는단 말이요. 그래도 소리 들리면 안 되니까 애를 꼭 껴안고 넘어온 거요. 그래 넘어왔는데 이제 얼마나 아이를 껴안고 넘어왔던지 울지는 않았는데, 와서 보니까 질식해가 죽은 거예요. 그 어머니 심정이 이해되지요.

우리가 지금 전도, 선교할 때 뭐부터 알아야 되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부산에서 그 공단 전도

를 시작할 때 딱 거 한 거 아닙니다. 공단의 아이들이 어려운 집 아이들에게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열다섯 여섯 이런 아이들이요. 학교 못 가고 거의 일하러 왔어요. 그것도 부산 아이들도 있지만은 저 전라도 이런 데서 많이 왔더라고요. 개들 보고 얘기했습니다. "밤에 공부해라. 도전하는 거야. 네가 월급 받으러 왔다고 생각하면 안 돼. 월급 그 얼마 되겠냐. 네가 여기서 복음 깨닫고 가정 복음화하고 가정 살리고 제자 되는 거야." 아니 그 말에 애들이 은혜를 받아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제가 안 찾아갔는데 처음에는, 계속 데리고 와요. 뭐 자기들끼리 통하는 언어 용어가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와요.

■ 서론_상처

상처. 이런 걸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부흥에 그 사람들 활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상처를 탁 덮어놓고 있어요. 우리가 뭘 행사에 활용해서 전도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한다, 그거는 아닙니다. 부흥이 되든 안 되든 복음 전해야 돼요. 부흥은 하나님이 시키는 거지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굉장히 이(사마리아 전도) 전도는 중요한 전도입니다.

1. RT 7 (TCK)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까라는 일단 렘넌트 7명을 한번 보세요. 이 상처는 영적인 암입니다. 걸리면요, 계속 암처럼 뿌리내려요. 여러분 이거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걸 먼저 없애줘야 돼요, 복음 안에서요. 또 아무리 공부해도 지식은 성장하는데 이 상처를 안고 있으면 영적 성장이 안 돼요. 영적 성장이 막 멈춰버린 거지요.

이 렘넌트 7명들 특징이 전부 TCK였는데 올 데 갈 데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요새이 노예로 간다, 감옥소로 간다, 누가 도와줘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 큰 상처가 발판이 됐는데 굉장한 전도자로 바뀌는 겁니다.

2. 히 11장 (죽음)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의 특징은 거의 죽음이었어요. 자, 이게 상처가 되어지면 죽는 거지요.

3. 초대교회 (단절)

초대교회는 죽음보다 더한 게 있어. 뭘까? 차라리 죽는 거는 낫단니까. 죽는 거보다 더한 게 뭐냐? 모든 사회에서 단절시켜버리는 거요. 이건 보통 문제 아니요. 모든 사회에서 단절시켜. 왜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런데 이들은 로마까지 정복했습니다.

▣ 본론

평신도 전도 선교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축복이 되는가, 보세요.

1. 시대의 장벽 (사마리아)

오늘 이 사마리아 전도는 시대의 장벽이 되는 이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1) 주전 722년

주전 722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이나 오래된 거지요. 이때에 이스라엘은 두 개로 쪼개져 있었어요. 남쪽은 유대인데 솔로몬 아들이 차지하고, 북쪽은 이스라엘 이래가 사마리아지요. 자, 주전 722년에 앗수르가 쳐들어온 거요. 얼마 남았나? 비참한 상태가 왔는데 죽이는 거는 물론이고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남자들을 썩다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노예로 팔아버린 거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갑자기 어디 끌려가 저 어디 노예로 팔려 간다, 생각해 보세요. 전 이스라엘 남자 거의 다 그레된 거요. 선교 못 깨닫는 게 이만큼 비참한 겁니다. 전도 선교 모르면 비참하게 되는 거요. 왜냐? 흑암 때문에.

여러분은 모르는 게 있어요. 너무 많아. 여러분 자체가 빛이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빛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네 위에 임하여 있으니 일어나 발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속으로 ‘아이고 내 까짓 게 뭘 빛이나.’ 싶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흑암을 무너뜨리는 빛이다, 그 말이요. 사탄을 이기는 빛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요.

선교 안 하니 이런(주전 722년) 일이 벌어진 거요. 이래 가지고는 각 나라에 이상한 종들을, 남자들을 또 사마리아에 데려다 놓은 거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연적으로 국제결혼이 일어나겠지요? 내가 볼 때는 국제결혼인데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잡종으로 본 거요.

2) 주전 606년

자, 그래서 주전 한 606년경에 복음 모르니까, 안 전하니까 남쪽 유다가 또 잡혀갔어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3) 주전 450년

주전 450년쯤 되겠지요.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성전을 재건해라, 그랬잖아요. 이때 처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동참하자.” 그랬어요, 성전 짓는데. “동참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너희들은 이런(주전 722년) 잡종이니까 동참하면 안 돼.” 자른 거요. 그때부터 이제 방해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큰 역사가 그걸 있습니다.

4) 주전 129년

그리고 난 뒤에 주전 129년에는 마카비 시대 때인데, 사마리아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 다 파괴시켜 버린 거요.

5) 원수 (단절)

이래 가지고 이스라엘 유대 사람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교통을 안 한 거요. 완전히 원수처럼 돼 가지고 단절돼 있었어요. 지금 남북한하고 비슷해요. 완전히 단절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니까 기분 나빠. 요 단으로 둘러서 간 거요, 전 유대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지요.

큰 지금, 완전히 시대의 장벽을요 시대의 상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이 복음운동이요.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고 “물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지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당신 유대인인데 어째 사마리아 여자인 날 보고 물을 달라, 하느냐?” 이(본론 1번)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물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깐요. 그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 하는 말이 “아니 당신 물 받을 그릇도 없지 않나? 내가 퍼서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릇도 없이 어떻게 물을 받나?”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생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푸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2. 개인의 상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개인의 상처들을 썩 무너뜨린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시대의 상처를 무너뜨리는 거고요, 완전 장벽입니다. 개인 상처를 무너뜨리는 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생수를 테니까 네 남편 데려오라.” 그랬잖아요. 그래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거요. “전 남편 없습니다.”

1) 다섯 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에 다섯 명 있었지? 그거 다 네 남편 아니야?”

2) 지금 남편

“지금 남편도 네 남편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 거요, 예수님이. 깜짝 놀랄 일이지요. 그러니까 28절에 보면은 이 여자가 너무 깜짝 놀라 가지고 “오, 당신 누굽니까? 당신 메시아 같다.” 말ियो. 그때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내가 바로 메시아, 그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3) 증인

이때 여자가 너무 깜짝 놀라서, 성령의 감동한 거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동네에서 증거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완전히 증인으로 바뀌는 거지요.

우리 선교하시는 분들, 일부러 “당신 상처가 뭐

냐?” 이렇게 물을 필요는 없지마는 상대가 상처를 내놓을 만큼 여러분들이 그걸 봐야 돼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도, 선교가 헛일 돼요. 많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 만난 사람들이 말하지 못할, 오래된 상처를 갖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개인 상처 다 있어요. 이거 풀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난리를 치면 교회가 부흥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본론 1, 2)을 지속적으로 치유되는 메시지를 계속하면요, 사람들이 연결돼서 다 오게 돼 있습니다. 주일날 겨우 나와서 예배드리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지마는요, 하루 종일 예배하고, 메시지 가져가서 계속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습디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개인의 상처, 안고 있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다, 어디서 왔다, 이런 사람들요, 시대적인 상처를 다 갖고 있어요. 이걸 풀어 준다가 아닙니다. 복음 들어가면 풀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걸(상처) 내놓을 수 있을 만큼 환경이 돼야 돼요. 상담을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고 얘기 딱 들어보고 ‘아, 이 사람 내 말을 들어주겠다.’ 하는 사람에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보세요. 이 TCK들은 엄청난 보물인데 상처 엄청 가지고 있어요. 그걸 고쳐 줘야 돼요. 그래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시도합니다라는 예배드리고 왔다 가는 교회 되면 안 돼요. 여기서 완전히 237, 치유, 서밋이 24 되고 있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충분히 될 거 같아요. 내가 메시지 약간 한 번, 두 번 던졌는데 벌써요, 우리 교회는 조직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금토일 시대 아이들 불러다가요, 아이들 제대로 도와줘야 됩니다. 아이들 진짜 기도할 줄 모르고 밖에 나간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뭐냐? 그걸 알아야지, 안 그러면 이 말 듣고 시험 들고, 저거 보고 무너지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아까 대학생들 보고 얘기 안 했습니까? 거지가 문제를 보는 눈하고 돈 많은 사람이 문제를 보는 눈하고 다릅니다. 그렇지요? 똑같이 여행을 갔는데도 돈 하나도 없는 거지가 따라가서 보는 거 하고 돈 많은 재벌이 가서 보는 거 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문제 만났나? 단어도 달라, 말이 다릅니다. 꼭 우리 램프들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애들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답을 찾고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상상외로 상처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메시지 듣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상처 다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발판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큰 축복인데 잘못하면 이게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게 된단 말이에요. 내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은 걸림돌일 수도 있지마는 아닙니다. 잘 쳐다보면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에 주실 새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많은 다민족들, 또 많은 성도님들의 어려움과 상처를 하나님이 고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 종교의 상처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요, 종교에 또 상처 많아요. 옛날에 말이지요, 우상 숭배하던 상처 다 갖고 있습니다. 낫하던 거 다 갖고 있어요. 이 부분을 싹 씻어 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사마리아 여자가 먼저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 하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나온 겁니다. 굉장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요.

1) 그리심산

“우리가 이 산에서 예배한다.” 이 말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

예루살렘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거 아니냐? 이게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기도를 해야 응답 되는 줄 압니다. 그것부터 벌써 틀린 거예요.

2) 하나님께

이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니라.” 그때 나온 말입니다.

3) [영과 진리]

매일같이 사회자가 하는 얘기, 뭐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

옛날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눈에 안 보이게 악한 영을 결박시키고 역사하시게 돼 있다. 이 상처(종교의 상처) 고쳐야 돼요. 그리심산, 예루살렘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은 영으로 역사하시느니라. 이 말을 못 알아 들으면요, 전 세계가 지금 악한 영에 잡혀서 다 죽는데 몰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평신도 선교하시는 여러분들 반드시 그 나라에 오래된, 본인을 죽이는 뭐가 있습니다. 풀어 줘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개인 상처 있습니다. 그게 어느 날 자라가지고 이상한 짓 한다니까요. 예배 제대로 못 드리는 잘못된 종교의 상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 결론

이렇게 결론 내려져야 돼요. 여러분도 누리고, 불신자, 구원받은 자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1. 참 복음 - 다른 것

참 복음은 다른 거 필요 없다. 왜냐? 그래야만 다른 거 살리는 거다.

2. 참 기도 - 모든 것

참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 문제 되지 않는다.

그래야만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다. 이거를 꼭 알려줘야 됩니다.

3. 참 전도 - 하나님 주권

참 전도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폭풍, 재앙이 아무리 들이닥쳐도 여러분 건들지 못하고 이 운동은 하게 돼 있습니다. 두고 보세요. 아무리 안팎으로 공격하고 해도요, 임마누엘교회와 우리 전도하는 분들,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길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 힘 얻으셔야 돼요. 날마다 새 힘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늘 이야기 안 합니까. 조금씩만 해도 돼요.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하세요.

[아침 기도(고요한 기도)]

저는 눈뜨는 게 기상입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눈뜨는 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어떨 때 눈 뜨면 새벽 세 시, 어떨 때 새벽 두 시, 다섯 시. 상관없어. 눈 뜨는 순간부터 아침기도 시작됩니다. 조용하게요. 참 고요한 기도. 굉장히 좋아요.

[밤(깊은 기도)]

밤에는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밤에는 제가 굉장히 깊은 기도에 들어가는데, 주로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니까요. 어제 같은 경우도 메시지 정리를 해 놓고 가다가 시간 지나 버리면 못 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좋아요.

[누리는 기도]

아침과 밤은 내 개인 시간이고, 여기(낮)는 활동하는 시간이잖아요. 이게 낮입니다. 그렇지요? 활동할 수 있는 시간 낮이니까. 누리는 기도. 계속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이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오는 응답이 올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아, 나 미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질문 안 해도 되는 응답은 분명히 올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문제가 딱 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보입니다. 정상입니다. 밖으로 내보내는 웹툰트, 이렇게(본론, 결론) 만들어서 내보내야 돼요. 모처럼, 외국에서 기적처럼 한국에 왔다 말ियो. 기적이예요. 이런 사람 많은 상처 있습니다. 이걸 고쳐 주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여 준 겁니다. 사마리아의 전도. 그리고 마지막에도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게 될 것이다.” 이번 주간에 언약만 붙잡아도 여러분, 새 은혜 임할 겁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행하시는 응답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